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사, 상반기 운영대의원 회의 개최

✎ 김준혁(=호남) 기자 | ☎ 승인 2026.05.15 17:16

농업인 대표와 영농기 현안 공유...농업용수·시설관리 논의
현장 의견 수렴 통해 물관리 효율화 영농지원 강화 추진



▲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사 운영대의원 회의 단체사진 [사진제공=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사]

[폴리뉴스 김준혁(=호남)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사가 지역 농업인 대표들과 함께 올해 영농기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농어촌공사 나주시사는 지난 15일 지사 대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운영대의원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역 농업인 대표들과 함께 주요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영농기 현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운영대의원회는 농업인의 참여를 통해 경영의 현장성과 물관리의 자율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소통 기구다.

이날 나주시사는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아 농업용수 공급 현황과 물관리 및 수리시설 관리 상황, 농지은행사업 등 핵심 업무 추진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유지관리 자원 확보를 위한 재생에너지사업 확대와 농업용수의 효율적 관리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홍보를 당부했다.

류화열 나주시사장은 "운영대의원회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듣고 지사 운영에 반영하는 핵심 소통 창구"라며 "대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안정적인 영농지원과 선제적인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시사는 올해 운영대의원 회의를 단순한 업무보고를 넘어 농업인이 체감하는 현장 불편과 수요를 사업에 반영하는 소통 중심 운영으로 내실화해 농업용수 관리와 시설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김준혁(=호남) 기자 junjun6816@naver.com